고은의 불교 대하소설

밤 뱃길

〈3〉

저 거대한 하늘의 낙조를 바라보는 일은 누구나 할 수 있으나 낙조 뒤의 보이지 않는 바를 보는 일(觀)은 쉽지 않을 터이다. 인간의 눈으로 볼 수 없는 세계에 대해서 대부분의 인간은 그것을 보려고 하지 않는다. 그럴진대 그 세계는 영영 없는 세계나 다를 바 없다.

그림 · 최규일

"2백냥에 팔려 온 낭자지요"···"소승에게 맡기시죠"

예성강 전포나루에서는 가근방의 섬이나 다른 포구에 가는 배가 많았다. 노젓는 소리가 여기저기서 삐꺽삐꺽 들리는 것이 이른 아침부터였고 배와 배 사이의 걸쭉한 욕지거리 인사를 나누는 거친 뱃사람들의 쉰 목소리도 제법이었다.

"왜 간밤 뒈지지 않고 또 나와서 성화인가".

"왜 네 녀석은 전포 색주가 춘심이 방죽에 폭 빠져 뒈지지 않고 살아서 귀찮게 구는 게여".

"허어 살아서 꿈결이요 저승 가면 십만팔천리 밖이여. 이 작자야 뒈져라 뒈져라 하지를 말어. 용왕님께서 진노하신 다 그 말이여".

"앗따 새 신랑 행세하지 말어. 헌 서방에 헌 계집이 제격이여. 그러나 저러나 해주(海州)로 가는 데 누구한테 전할 것 없나?"

"없으이. 잘 다녀오시게".

"아암 작별 인사가 제법이시네. 어디 건너가나?"

"나야 큰 연평도 작은 연평도 두루 다녀 올 테여".

안개가 진하였다. 안개 속으로 자취가 사라지며 뱃사람들의 이 배 저 배의 대화가 끝나면 한동안 물소리도 잠잠해져서 적막하게 된다.

인담이 제물포로 떠날 배는 소금배여서 소금을 다 퍼낼 때까지 기다려야 하였다.

본디 사람을 실어 날으는 일은 궁상맞다하여 선장이 탐탁치 않게 여겼는데 전포나루 술청의 늙은 주모가 불법(佛法)신행이 독실하여 인담의 뱃길을 떼를 쓰다시피 주선한 것이다.

선장은 수염 밖에는 생각이 날 수 없을만큼 얼굴이 그 푸짐한 수염으로 뒤덮여 있었다. 게다가 무척이나 살찐 굉이 거북하게 날아가는 것 같은 그런 둔탁한 동작이었고 말 한 마디도 고까웠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억척스러운 사공들을 잘 거느리고 있었다.

소금배가 소금을 다 퍼내고 그 빈 선창(船倉)에 예성강일대의 잡곡 섬을 실었다. 그런 다음 인담과 몇몇 사람을 태웠다.

두 폭 황포의 돛이 오르자 마치 바람이 일어나는 것처럼 그 돛은 제법 임신한 배처럼 바람을 푸짐하게 안고 떠나는 것이었다.

요즘 부쩍 많아진 왜(倭)의 해적선이나 청나라 수적의 배들이 서해 무인도 뒤에 숨어있다가 갑자기 나타나는 일이 있는 장엄한 낙조로 일변하는 것이었다.

"꼭 무욕도의 낙조와 같아라"라고 인담은 혼자 중얼거렸다.

그는 생각하였다. 저 거대한 하늘의 낙조를 바라보는 일은 누구나 할 수 있으나 낙조 뒤의 보이지 않는 바를 보는 일(觀)은 쉽지 않을 터이다.

인간의 눈으로 볼 수 없는 세계에 대해서 대부분의 인간은 그것을 보려고 하지 않는다. 그럴진대 그 세계는 영영 없는 세계나 다를 바 없다.

그렇다면 인간이란 그들의 눈으로 보이는 것만을 현실로 받아들일 뿐 그밖의 것은 현실이 아니라고 여겨 마땅할 것이다.

"참으로 사람이 사는 세상이란 한간방과 다를 바 없어라"라고 인담은 또 중얼거렸다.

제물포에서는 두 시각을 지나서 밤중이 되어서야 다른 물화(物貨)를 포구 관원들의 눈을 피해서 싣은 뒤 바로 떠났다.

군창포(群倉浦—群山浦)로 가는 길인데 도중의 당진(唐津)에서 내리거나 태안반도의 적당한 어촌에서 정박하면 어촌의 조각배가 달려오게 하여 인담을 내려주게 되어 있다.

밤 바다는 사공 조차도 온몸을 꼼짝달싹하지 못하도록 춥다. 그래서 인담은 어떤 낭자(娘子) 곁에서 바짝 몸이 달붙도록 좁은 선창 안에서 견디어내야 하였다.

그러고 보니 그 낭자는 이따금 울고 난 뒤의 흐뭇거림을 간간히 잇고 있었다.

"어디까지 가는 길이오?"

하고 인담은 그녀를 달랠 셈으로 말을 시켰다.

"아버님께서 저를 팔았습니다".

"누구한테?"

"선장님한테요".

"무슨 사연이 있는게로군. 여기 가만히 있도록 하오".

하고 인담이 선장이 한잠 자는 곳으로 옮겨갔다.

선장은 토막토막 잠을 청하고 나서 잠을 깨어 다시 뱃전의 이물과 고물따위를 살피는 것이었다. 그것은 숙직의 사공을 감독하는 역할이기도 하였다.

한밤중 3경(三更) 4경인데도 배는 파도들의 뒤척임을 타고 가장 노련한 항행(航行)으로 남으로 남으로 가고 있었다.

"덕적도(德積島)는 지났나?"

"진작 지났습니다요".

이런 선장과 사공 사이의 말뒤에는 다시 뱃전에 부딪치는 파도소리 뿐이었다.

인담이 선장 앞에 섰다.

"저 낭자는 어디로 보내게 됩니까?"

"스님께서 마누라로 삼고 싶소? 허허".

"그럴 수도 있겠지요".

"그럼 수도 있다?"

"어디로 보냅니까?"

"실은 저 계집아이의 아버지가 나에게 빚을 져서 빚 대신 딸을 팔아버린 셈입니다만. 단돈 2백냥에···."

인담이 말하였다.

"소승이 2백냥을 내겠습니다. 지금 당장이 아니라 1년 안에 탁발(托鉢)을 한 뒤 갚겠습니다".

"떠도는 스님을 어찌 믿겠오"하고 선장이 어둠 속에서 이빨을 드러내어 웃었다.

"소승이 제물포의 객주(客主)에게 돈을 맡겨놓겠습니다. 꼭 1년 뒤에".

선장은 말이 없었다. 농담 반이 진담으로 되는 것이 엉뚱한 느낌이었다.

배는 훨씬 속도를 내고 있었다. 어둠 속에서도 그 사실을 실감할 수 있었다.

선장이 말하였다. "저 계집애는 실성(失性)하였오. 어느 때는 얌전하나 한번 딴 정신이 들면 마구 날뛰는 망아지랍니다. 그래서 군창포에 선 무당이나 설미친 년놈을 바로잡는 영험(靈驗)있는 노인이 있어 그리로 데려가는 것이오···. 다행히 거기서 낫게 되면 내 첩으로라도 삼을까 하는데···."

"선장 처사(處士)님! 제발 저 낭자를 소승에게 맡기시오. 소승이 꼭 저 낭자를 신령스럽게 만들 작정입니다".

선장의 표정을 어둠 속에서 읽을 수는 없었다. 그런 선장에 대고 인담은 집요하였다.

"소승의 뜻대로 하도록 말미를 주시오".

드디어 선장의 뜻을 굽혔다. 마치 인담이 단단한 줄기의 대나무를 불길에 지나치지도 않고 얼치기도 아니게 대어 그 대나무를 자연스럽게 휘어내는 것같은 기교를 다한 것이다.

"그렇게 간절한 소원이라면 데려가시오. 하기야 스님과 짝이 되면 동남동녀(童男童女) 몇놈은 낳을 수 있을 것이오".

"나무관세음보살".

새벽이었다. 충청도 당진나루에서 인담은 검붉이 묻은 머리의 낭자를 데리고 내렸다.

"나를 따라오게".

"·····"

낭자는 보퉁이 하나 가슴에 안고 짧은 댕기머리로 인담의 뒤를 따랐다. 댕기머리가 길지 않은 것은 그녀의 아버지가 술값으로 딸의 머리를 잘라 팔았기 때문이었다. 아비는 건달이었고 딸은 효녀였다. 그 효녀가 끝내 팔린 몸이 되었다가 한 승려를 만나 전전(轉轉)하는 삶의 무대에 오른 것이다.당진에서 서산 몽산포까지 황톳길을 내내 걸었다. 가다가 쉬고 가다가 쉬었다. 낭자는 걸음을 걸어본 일이 별로 없어서 인담의 휘영청 달밤의 달빛 같이 빠른 걸음으로 가는 속도를 따르지 못한 것이다.

다음날 두 사람은 몽산포 남쪽의 어리굴 개펄에서 무욕도 왕래의 헌 낙배를 탔다. 그러니까 그 배의 소유를 말할진대 인담의 것이었다.

"혹시 ··· 나를 두려워하지 말구려"

"···"

"낭자 이름을 알고 싶은데".

"우녀(雨女)라 합니다".

"우녀라!"

"제가 태어날 무렵 오랜 가뭄 때문에 비를 기다렸는 데 제가 태어나서 우는데도 비가 오지 않았다 합니다".

"그래서인가".

"한갓 청개구리도 울면 비가 오는 법인데 사람으로 태어나 울어도 비가 오지 않으니 저를 내버릴까 하다가 키웠다 합니다".

"기구한 시절이라".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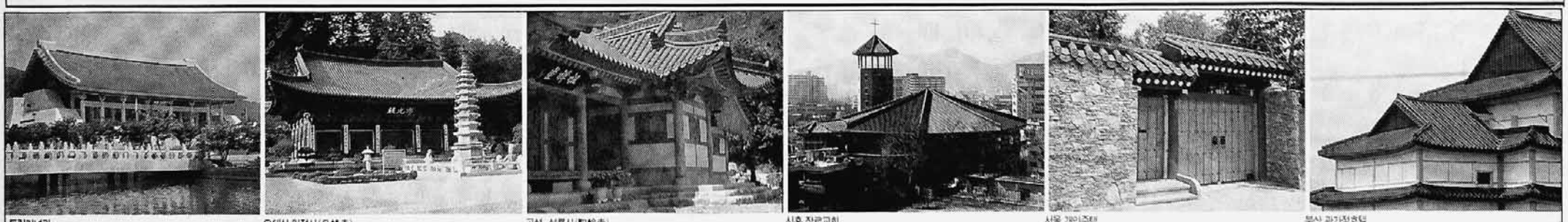
"송도 밖의 두메에서는 흔한 일이었습니다".

"묵승이 귀한 줄 모르는 세월이라".

배가 무욕도에 닿자 인담은 낭자보다 그가 애지중지 지니고 온 임춘의 〈서하문집〉에 더 마음을 썼다. 아니 그것과 함께 〈수미행〉 책자도 마찬가지였다.

무덕대고 낭자더러 갈대지붕 밑의 정지에 들어가 마음대로 밥도 짓고 반찬도 만들어보라고 방치하였다. 여자란 본능적으로 제 일에 바로 익숙해지는 것인지 몰랐다.

그동안 인담은 옷도 갈아입을 생각을 하지 않고 그책 대질과 〈수미행〉을 넘겨보며 한나절을 보냈다.


독립기념관 오대산 월정사(月精寺) 곡성 성륜사(聖輪寺) 시흥 장로교회 서울 개인주택 부산 관가정호텔

전통기와의 멋과 품격을
풍산 한식銅기와가 완벽하게 재현했습니다!

풍산 한식동기와는 전통을 소중히 하는 사찰, 고건축물 등 한식가옥과 주택의 미를 추구하는 기념건축물, 일반 가옥 등에 잘 어울리는 지붕재입니다.

■ 내식성이 뛰어나 수명이 반영구적입니다.
풍산 한식 동기와는 시공후 짧은 시간내에 표면에 치밀한 조직의 산화막을 형성, 부식을 막아주므로 수명이 반영구적입니다. 또한 내후성과 방수성이 뛰어나 어떠한 기후 조건과 변화에도 안정된 상태를 유지, 눈, 비, 바람으로부터 건물을 보호해 줍니다.

■ 고색창연한 색상과 전통미를 재현했습니다.
풍산 한식동기와는 동판 특유의 색상변화에 따라 시간이 흐를수록 중후한 색상을 이루어 건물에 고색창연한 멋을 더해줍니다. 여기에 동판의 우수한 가공성을 이용, 우리기와의 전통적 원형과 곡선미를 완벽하게 재현시킴으로써 고유의 멋을 그대로 살려주고 있습니다.

■ 시공이 간편하고 경량입니다.
풍산 한식 동기와는 주요 기와부품을 기계 가공해 제품이 규격화되어 있으며 완전조립식으로 시공이 간편합니다. 또한 기와의 중량이 흙기와의 10분의 1정도로 가벼워 운반이 쉽고 건물에 무리를 주지 않습니다.

뛰어난 내식성과 내후성, 중후한 색상, 완벽하게 재현된 전통미 그리고 시공이 간편한 풍산 한식동기와로 현대건축물에 전통가옥의 멋과 품격을 살려보십시오.

株式會社 豐山
전화 : 273-3021/9 FAX : 273-3835

풍산 한식동기와는 독립기념관, 오대산 월정사, 구례 화엄사 연기암, 하동 칠불사, 부산 관가정 호텔, 문경 김룡사, 문경 대승사, 부산 복천사, 상주 원적사, 상주 극락정사, 곡성 성륜사, 시흥 장로교회, 서울 개인주택, 제천 강천사, 대구 관암사, 태백 현불사, 구미 해운사, 나주 홍씨제기, 성남 한국도로공사, 이리 동일유업, 대구 대구여중, 서울 화계사